

새 책

▶꽃에게 길을 묻다(강남일 지음)=제주에서 36년간 교직 생활을 한 저자의 포토 에세이다. 올해 교단을 떠난 그가 건강을 위해 걸었던 지난 20여 년 간의 길의 흔적이기도 하다. 꽃의 노래로 시작해 나의 노래까지 총 4부로 이어지는 책에는 직접 찍은 사진과 짙은 글이 담겼다. 제주의 아름다움과 한라산을 오르며 꽃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저자가 기록한 다채로운 꽃과 제주의 풍경 등이 펼쳐진다. 한그루. 1만5000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리운 아버지(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엮음)=흔히 '여수순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등으로 불리는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인 여순사건의 진실을 140여명의 증언을 통해 내보인다.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심미안. 1만5000원.



▶설문초등학교 수업일지(이현아 글·강일 그림)=(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제주신화 콘텐츠 원전소스 스토리 공모전' 대상작이 만화로 나왔다. 제주 서쪽의 명승지인 산방산에 위치한 산방당이 이야기를 큰 줄기로 무분별한 개발의 문제를 꼬집으며 인간의 탐욕을 돌아보게 한다. 40년 넘게 제주에 살며 만화를 그리고 있는 작가가 그림을 맡았다. 한그루. 1만5000원.



▶우리가 뭐 어때서?!(페드로 마나스로메로 글·김지애 옮김)=어느날 아침,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모른 채한다. 매일 하던 축구게임에도 끼여주지 않는다. 갑자기 왕따가 돼 버린 아이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들과 비밀 클럽을 만든다. 한데 모여 함께하면서 남들이 말하는 이상함이 자신만의 특별함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는다. 라인. 9500원.



▶출동! 우리가 홈닥터(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지음)=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를 돌봐야 하면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도 불안하다. 밤잠이 조금씩 길어져도, 콧물을 조금만 흘려도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 책은 콧물, 재채기, 배탈, 발열과 같은 흔한 증상부터 시기별로 나타나는 질병과 전염병을 꼼꼼히 짚는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 5-6세가 되기까지 참고할 수 있는 아이 건강과 올바른 육아 정보를 모았다. 비타북스. 2만8500원.



▶왜 반대편을 중요하는가(셀리 콘 지음·장선하 옮김)= '인간은 언제 약해지는가', '인간은 왜 순식간에 무례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게 되는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통해 이를 탐구해 온 저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들여다본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반대편에 대한 중요성을 짚 수 있는 힘을 제시한다. 에포케. 1만4800원.



위장막 저편에 숨은 편견부터 끌어내자

멜린다 게이츠의 '누구도 멈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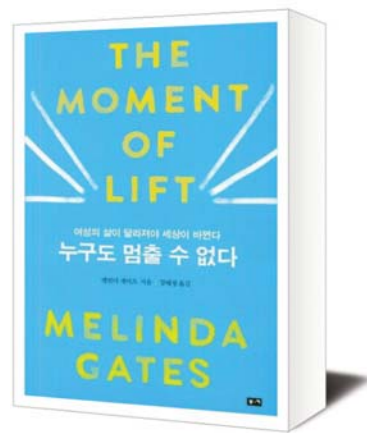
아프리카 빈곤 현황 목격 여성 권한 강화 실천 담야

어느 엄마처럼 아이들이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의 일상은 2000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을 설립한 이후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만남으로 채워진다. 세계 최대 민간 자선단체의 공동의장 역할을 했던 그이지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도 언론은 그의 이름을 뺀 채 '빌의 재단'이란 표현을 썼다. 공개석상에서 발언할 때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 결국 그는 이혼을 고민할 정도의 격렬한 싸움 끝에 연례 서한에 둘 모두의 이름을 올려 놓았고 재단의 얼굴로 연설에 나섰다.

빌 게이츠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 그의 자전적 에세이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평등한 부부 관계를

쟁취하는 일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바꿈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세심 일깨운다. 아프리카의 비통한 삶과 마주한 뒤 자선을 실천해온 행보를 통해 여성을 넘어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 앞에 놓인 벽을 부술 때 빈곤, 질병, 불평등을 헤쳐갈 수 있다고 말한다.

멜린다는 '여성의 권한이 강화되면 인류는 번영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 가족 계획, 여자아이 교육, 무급 노동, 조혼, 여성 농업 종사자, 여성들의 직장 문화, 성 노동자 문제에 집중했다. 여성 차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남아시아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 전통과 관습을 앞세워 재단 사업을 막았다. 그래서 현장에서 걸어들어갔다.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활동가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며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앞으로 10년 간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여성의 권한 강화에 쓸 예정이다. 그 목표는 여성들이 힘을 합쳐 남성들에 맞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위장막 저편에 숨어있는 성 편견을 끌어낼 때 점점 더 많은 남자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편견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편견들을 감추고 있는 규범들을 바꾸는 방법이다. 그것에 직면할 때 또한 그것을 끝낼 수 있다." 강혜정 옮김. 부기. 1만8000원. 전선희기자

가막작지와 영덕 사연 품고 골목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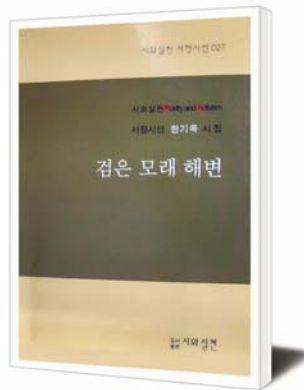
한기옥 첫 시집 '검은 모래 해변'

열 살 무렵의 기억은 그에게 잊히지 않는다. 국민학교 3학년 때였다. 삼양 바닷가 큰 바위를 일컫는 '그날의 영덕'에 사연이 있다. '한 밤중 총소리에 놀라' 온 가족이 바닷가로 뛰어 들어가/ 불어난 밀물/ 바닷가 한가운데/ 짧은 목만 내놓고/ 밝아올 새벽을 기다리던/ 지독한 여름 속에서/ 눈물만 한숨 반 하염없이 쏟아내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 바위는 수십 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는 뒤늦게 그날을 털어놓는다.

40여 년 몸담은 교직에서 퇴임한 뒤 2013년 문단에 나온 제주 한기옥 시인의 첫 시집 '검은 모래 해변'이다. 팔순을 넘긴 시인은 고향인 제주도 삼양동과 20대부터 줄곧 살아온 일도2동 두맹이 골목을 큰 줄기로 머지않아 사라질지 모를 장면들을 불러냈다.

시집은 삼양동 산물(유천수)이 솟아나던 '가막작지 풍경'으로 열린다. 김이(계)와 보말(고동)이 보일 듯 말듯 숨어있던 가막작지는 자갈과 돌이 속삭이던 곳이다. 시인에게 삼양은 그런 공간이다. 검은 모래 해변에 가면 바다가 그리움을 부르고 오솔길 따라 원당봉에 오르면 세월을 낚는 낚시배가 눈에 잡힌다. 하지만 '동카툼 성장의 갯내음도 희미'해진 세월의 흐름은 올레를 포장된 주차장으로 바꿔놓았다.

'세상살이가 복잡해서인가/ 막말이 붓물' 같은 시절에 시인은 '스틱을 쥐고' 골목길을 걷는다. 그 아들은 한승엽 시인으로 시집 '두맹이 골목'에서 지난 향기를 찾고 '비 내리는 칠성로'에선 웃음으로 나누던 옛 이야기를 불러낸다. 바다로 향하는 '해빛골 향



기'엔 내일을 기약했던 청춘의 발자국이 있다. 이번 시집엔 60년 넘는 시들이 담겼다. 틈틈이 노트에 써놓은 170여 편 중에서 시를 쓰는 아들이 골라낸 작품들이다. 시인은 "둘째(아들)가 나머지 시들은 잊어버리라"고 했으며 허허 웃었다. 그 아들은 한승엽 시인으로 시집 '물입의 서쪽', '별빛강장' 등을 냈고 천강문학상,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와실천. 1만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저자와 함께 신작 시집 송상 시인

"맑은 언어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다"



송상 시인이 기존 언어에서 탈피하려는 작업의 결과물을 담아 5년 만에 신작 시집을 냈다.

시인이 이 겨울 시(詩)에 꽃피우고 싶었던 건 '새로이 중심이 생긴 말의 조각'이다. 그는 '상상의 회로를 거친 문장'들에 뻗은 비유가 아닌 '뒤틀린 은유의 맛'이 배어있었으면 했다. 닳도록 보아온 그 무수한 시어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처음 만난 아이처럼 그만의 언어를 토해내고 싶은 바람이었다. 5년 만에 신작 시집 '생각의 미끼를 문 순간'을 묶은 제주 송상 시인이다.

표제시에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있다. '엄밀대로 얽힌 비릿한 내 말들. 이념이나 종교의 뒀에 걸린 사 람처럼 휘둘리는 내 말들. 누군가 이미 만든 말을 타고 달리는 내 말들. 모두 종이집에 쑥셔넣고 가벼운 다비식을 올려요. 그리고 통과의례처럼 바람에 손 흔들며 장례를 지 내요.' 시인은 왜 시집들은 고운 언어로만 채워져야 하는 걸까란 의문을 가졌다. 똑같은 언어의 반복에 싫증이 났다.

이번 시집엔 기성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말들을 꿰어내려는 몸부림을 담은 시편들이 흩어졌다. 그 여정은 고통스럽다. '깨어진 문장이 달빛에 흠뻑 젖어' ('파문(波文)')이거나 '천장에 초췌한 추상의 활자들이 날브러져' ('불면') 있다. '가련의 언어들'은 '굴리면 돌아오고 다시 굴리면 밀바닥까지' ('시시포스') 떨어진다.

'달으면서 스미지 않고 차이면서 발 들여놓지 않은' 감정의 문장을 찾아나선 시인의 작업은 우리가 잘 아는 소재를 빗어낼 때 더 빛이 난다. '변증법'은 '쇠처럼 강한 것이다. 아니다 솜털처럼 말랑말랑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강하면 서도 말랑한 것이다. 저기, 거머져 겨울 바다로 물질 가는 어머니' 라고 해녀를 노래한다. 새봄오름에 불길 쏘는 '들불 축제'에선 '길 아래로 터져 번지는 붉은 팻줄, 확인 찍힌 무자녀 목숨들'을 목격하고 '대 끊긴 평화'의 비극을 읽는다.

2월 말 오랜 교직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임하는 시인의 이력이 겹치는 시도 여운이 길다. 같은 제목을 단 두 편의 '노란 리본'과 '2018.3.18. 200mm 봄비에 투신한 꽃'은 시어를 고르고 고르며 목매인 감정을 누르고 누르며 썼으리라 짐작된다. 아름다운 별들만 쫓지 않고 상처난 꽃눈을 어루만지려는 시인의 손길에 하르르 눈부신 빗꽃 떨어진 다. 현대시. 1만원. 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승진

차장 검사



강종현
(신도초26회, 신도3회 출신)
(부: 강성보(前 대정농협조합장) · 모: 진순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 부장검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도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양병택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법환초등학교 교장



김애숙

법환초등학교 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김영수, 애자, 영주, 영보)

축 CONGRATULATIONS

취임

성읍초등학교 총동문회장



김철홍

성읍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읍초등학교 제32회 동창생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01번'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